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윤 성 원

한국 삼육고등학교

김 병 찬**

경희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중심의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 ‘품앗이 문화’, ‘하늘바라기 문화’ 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의 하위 문화로는 ‘나누기’, ‘버팀목’, ‘수호천사’ 문화가, ‘품앗이 문화’의 하위 문화로는 ‘도르리’, ‘함께하기’, ‘깊은 마음 나누기’ 문화가, 그리고 ‘하늘바라기 문화’의 하위문화로는 ‘한 방향 향해가기’, ‘창조자연 접하기’, ‘두 가지 역할하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는 주체적인 교사문화, 목적의식이 강한 교사문화, 협력문화 등의 특징이 있음을 논하였다.

핵심 주제어 :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 협력문화, 목적의식이 강한 문화

* 본 논문은 윤성원의 석사학위논문(경희대 교육대학원, 2008)을 수정, 발전시킨 것임.

** 교신저자: bckim@khu.ac.kr

I. 서 론

학교는 교육이라는 독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학교 행정가와 교사, 학생들로 구성된 조직사회이다.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작은 사회이며, 이 작은 사회 속에서 교사들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교사들은 주어진 여건과 한정된 시설 속에서 다양한 교육적 행위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교사 개개인의 문화는 주된 학교의 교사문화로 자리 잡게 되며, 이런 교사문화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¹⁾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육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사들의 실제 상황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교사문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지금까지는 교사들의 피상적 의견이나 가치관 등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는 것에 그쳤을 뿐 실제 교사들이 어떠한 생각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연구물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²⁾ 교사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 교사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복잡한 현실 세계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사문화가 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모든 일상, 즉 학교라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교사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 녹아들어가 있기에 그들의 교사문화를 밝혀내기 위한 교사들의 행동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³⁾에 의하면 2007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수는 국립 12개교, 공립 792개교, 사립 653개교로 총 1457개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일반계 사립 고등학교 653개교 중에 한국 기독교 학교 연맹에 등록된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수는 174개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가 전체 인문계 사립 고등학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지금까지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묻혀서 함께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차이나는 교사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비율적으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징과 교사문화를 밝히는 일은 동시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사문화를 이해하

1) 박용현, 『학교와 사회』(서울: 배영사, 1997), 226쪽; 김철훈, 「인문계 고등학교 문화연구」(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2) 김병찬, 「중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1권 1호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오영재, 『한국 학교조직 질적 연구』, (서울: 학지사, 2007).

3)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는 과정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시위주의 성향이 강한 인문계 고등학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적인 특성을 가진 한 기독교계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어떤 교사문화를 형성하는가, 둘째,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들이 형성한 교사문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등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계 학교의 현장 교사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문화에 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제공하여 교사문화 현상이론(grounded theory)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선행연구 분석

교직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다양한 교사문화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초·중·고 학교 급별에 따른 교사문화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교원들의 문화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문화의 특징으로 개인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교사문화의 특징으로 교사의 개인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학자인 로티(Lortie)에 의하면 교사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유 시간이 생길 경우 동료들과 지내기보다 자신의 교실에서 보내는 것을 선호하며, 교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 체계를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동료들과 협력하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국내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교직문화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와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로 보는 연구물들이 많이 있는데, 참여관찰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의 문화를 분석한 황기우는 교사의 특성, 상호작용, 교사 개인의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각 요인들이 상호 연관되어 개인주의 교사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⁵⁾ 이정선·최영순은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특징으로 전문적 기술문화의 부재, 개인주의, 현재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이중성 등을 제시하였으며,⁶⁾ 인터넷을 통한 초등학교 교사의 문화를 분석한 함영기·양정호는 초등학교 교사의 문화 양식으로 경력위주, 선후배간 위계질서 문화, 동 학년 문화를 제시하였다.⁷⁾

4) D. Lortie, *The school teacher: A sociological Stud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75).

5) 황기우, 「교사문화의 생성과정 분석」, 『교육문제연구』제17호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2), 213-228쪽.

6) 이정선·최영순, 『초등학교문화 이해』, (경기: 학지사, 2007).

7) 함영기·양정호, 「인터넷 활용의 일상화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문화 연구」, 『교육행정학연구』21권 4호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299-320쪽.

박정근은 초등학교 동 학년 교사문화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특징으로 ‘여성주의’, ‘소극주의’, ‘온정주의’ 등을 밝혀서 제시하였다.⁸⁾ 박종흡·이관규는 교직사회를 초·중등으로 구분했을 때 초등이 가지는 독특한 교직문화가 있고, 중등 역시 독특한 교직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중등의 경우는 과목중심·학년중심의 성격이 강하다면 초등은 담임중심·학교장중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⁹⁾

중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의 교직문화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같은 고등학교끼리도 지역 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의 교직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실시한 김병찬은 중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의 특성으로 ‘행정업무중심 문화’, ‘교사 편의 위주 문화’, ‘형식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문화’, 목적의식이 약한 문화, ‘여교사중심 문화’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으며,¹⁰⁾ 2월의 교직문화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를 실시한 김영태는 2월 학교교육 실태를 설명해 주는 주요 주제어로 행사와 업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학급경영과 교과지도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끝까지’, ‘전략수립’에 고심하는 모습을 통해 2월 교사생활 실태를 ‘분주하고, 피곤하며, 슬픈’ 모습으로 표현하였다.¹¹⁾

오현옥은 신설중학교 교사문화에 관한 연구에서, 신설중학교에서 교사들이 가지는 교직문화의 특성으로 ‘개국공신의 자세’, ‘부담업무의 기피’, ‘가족적인 분위기’, ‘전임교 교사문화의 이식’ 등의 모습이 있음을 밝혀냈다.¹²⁾ 김희복은 중학교 교사의 문화는 입시위주 및 진학위주 풍토가 약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학교 교육이 입시 및 진학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며, 반면에 고등학교의 교직문화는 입시위주의 성향이 강함을 밝히고 있다.¹³⁾

이인효는 참여관찰과 제보자 면담과 문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교직활동을 이끄는 민속적 원리로서 교직문화를 구성적, 해석적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녀는 교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조건으로 상급교육 행정기관의 지시와 학부모의 요구를 들으면서, 교직문화를 수업활동을 이끄는 원리, 학급담임 활동을 이끄는 원리, 교직문화의 주제 세 측면에서 논의 하였다. 그녀는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방식의 특질로 ‘암죽식 수업’을, 학급관리 방식의 특질로는 ‘온정적 지도’를 밝혀냈다.¹⁴⁾

최용성은 여수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직문화연구에서 교직문화의 특성으로 ‘인간관

8) 박정근, 『초등학교 동 학년 교사문화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서울교육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5).

9) 박종흡·이관규,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관한 연구』 『지방교육경영』2권 1호 (부산: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1997), 229-257쪽.

10) 김병찬, 같은 글, 6-19쪽.

11) 김영태, 『2월의 교직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4권 1호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2001), 45-81쪽.

12) 오현옥, 『신설중학교 교사문화에 관한 연구』(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3) 김희복, 『학부모 문화 연구: 부산지역 중산층의 교육열』(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4) 이인효, 『인문계 고등학교 교직문화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게 지향성', '독립성 유지', '방어와 보수', '무력감 혹은 체념'이 있는 것으로 제시했으며,¹⁵⁾ 김철훈 또한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교직문화의 특징으로 '기계적인 활동으로서의 교직 생활',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직문화', '형식주의로 왜곡된 학사업무' 등을 제시하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¹⁶⁾

황석도는 교육활동을 통해 본 고등학교 교사의 교사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고등학교 교사는 그들이 실현하고 있는 이상적 교육 행위와 학교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문화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교사문화의 특성으로 '성적위주의 교육 현실에 대한 순응성', '업무에 대한 냉소적 회피성', '닫힌 성에서 누리는 자율성', '전문성 지향의 종합성', '심리적 보상성', '승진 지향성'을 제시하면서 세계화 · 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사문화를 위해서는 회피성, 순응성, 폐쇄성, 승진 지향성 등의 부정적인 문화보다는 적극성, 창의성, 다양성을 창조할 수 있는 교사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⁷⁾

오영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의 교단일기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중등학교 교사는 비교적 여유가 없는 반복적인 생활주기 속에서 고단한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하였으며, 중등학교 교사의 생활 속에 나타난 '통제되지 않는 학생들', '속수무책의 대응과 면책의식', '성적 위주의 교육현실에 대한 순응적 자세', '행정에 대한 냉소적 형식주의로의 대처', '닫힌 성에서 혼자 살기' 등을 교직문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¹⁸⁾ 김경미는 중등학교 교직문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중등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의 특성으로 '존재 가치에 대한 강한 인정성'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와는 달리 중등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았으며, '공적 활동 중심의 개인주의'를 통해서 정보 공유 및 활용 부족, 대화 부족 등의 개인주의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동 학년 및 동 교과 중심의 우리주의'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대부분의 교사가 학급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년 중심성의 성향이 강한 반면, 중등학교 교사들은 교사의 절반 정도만 담임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년 중심성과 교과 중심성의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¹⁹⁾

또한 정병호는 공 ·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 비교에서 공 ·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일상적 삶 속에 내재된 교사문화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했으며, 여기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시 지향적 교사문화의 비교에서는 두 학교가 공통적으로 입시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준비 과정상 또는 입시지도에 임하는 마

15) 최용성, 「여수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직문화연구」(여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6) 김철훈, 「인문계 고등학교 문화연구」(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7) 황석도, 「교육활동을 통해 본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에 대한 질적연구」(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8) 오영재, 「교단일기를 통해 본 중등교사의 삶과 문화」 『교육학연구』 39권 4호 (서울: 한국교육학회, 2001), 207-230쪽.

19) 김경미, 「중등학교 교직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음가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둘째, 승진구조와 교원연수 비교에서는 승진에 대한 갈망이 공·사립 교사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병리 현상과 관련하여 공·사립 간에 발생하는 교과서나 참고서 채택, 식사나 술자리문화, 오락문화, 존지문화,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 등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²⁰⁾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교사문화를 지배하는 원리, 사회·문화적인 조건 등에 대해 다양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의 문화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의식 및 문화가 역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 학교급의 교사문화 특징에 대해 다양하게 밝히고 있지만, 기독교계 학교, 특히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사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 특징이다.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사문화 특징을 밝혀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Ⅲ. 연구방법 및 과정

1. 자료의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인 한사랑 고등학교(가칭) 교사들의 교직 문화를 드러내기 위해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들의 행동과 의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학교의 규정, 학교에 접수된 공문, 학교에서 제작된 유인물, 교과 협의록,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 학교 교지 등의 수집과 분석을 순환적 과정으로 병행하였다. 한사랑 고등학교에서의 참여관찰 및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8개월에 걸쳐서 이루어 졌다.

1) 참여관찰

질적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방법의 하나로서 참여관찰은 현장관찰과 자료 기록을 위하여 관찰자가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구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는 현장 활동을 의미한다.²¹⁾

연구진 중 한 사람은 한사랑 고등학교에서 2007학년도에는 연구부 부원으로 심화반을 관리 했고, 2008학년도에는 고3 담임을 맡았으며, 또한 2년 연속으로 한사랑 고등학교 상조회 총무로서의 일을 담당하였다. 연구진은 교사들의 교직문화를 참여관찰하면서 관찰 초

20) 정병호, 『공·사립 인문계고등학교 교사문화 비교』(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1) J. P. Spradley,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기에는 어떤 선입관도 갖지 않으려고 내부자(insider)가 아닌 외부인(outsider)으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며 관찰하려고 노력하였고, 참여관찰을 통하여 드러난 교사문화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7년 12월 이후에는 교사들의 행위 규범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행동과 대화를 선별적으로 관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2008년 2월 이후에는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의 행위규범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교사들의 행위에 관하여 집중관찰을 실시하였다.

2) 심층면담

제보자가 정보나 의견, 신념 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로 정의 내려지는 면담은 참여관찰과 함께 질적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방법이다.²²⁾ 대화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해석을 획득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인간 상호작용의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화가 전제되는 면담은 제보자들의 관점과 생활 세계, 그들의 의식, 주관성, 감정 등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목적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연구자는 이 연구를 위해 심층면담 방법으로 반 구조화된 면담 기법을 사용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담이란 면담 대상자가 개방적인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형식의 질문을 사전에 작성하여 면담 중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 구조화 면담에서는 질문이 개방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때문에 면담 대상자는 자신의 느낌, 의견,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나 속도, 질문의 폭과 범위를 조절하였으며, 면담은 면담대상자의 양해를 구해 녹음기에 녹음하였고, 녹음된 자료는 워드 프로세서로 전사하여 파일로 정리해 두었다. 연구자는 면담을 하기 위해 교무실, 회의실, 특별실 그리고 식당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면담 방법은 주로 개인면담이 실행되었고 상황에 따라서 그룹면담도 실행하였다. 연구자가 연구하는 동안 면담과 참여관찰에 참여한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적사항은 다음 <표 1>와 같다.

22) 앞의 책, pp. 34-68.

23) 이용숙 외,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 하는 실행연구방법』(서울: 학지사, 2005), 193-200쪽.

〈표 1〉 면담자의 인적 사항

번호	직위	이름 ²⁴⁾	성별	담당업무	교과	교직경력(년)
1	교장	김광섭	남	학교총괄		39년
2	교감	석종철	남	교무관리		30년
3	교무기획부장	오정환	남	교무기획	국어	19년
4	생활지도부장	박명철	남	학생기획	지리	21년
5	교육연구부장	박명진	남	연구기획	역사	23년
6	교육정보부장	송일민	남	교육정보기획	수학	26년
7	진로상담부장	오현식	남	진로상담기획	수학	22년
8	환경윤리부장	주성현	남	환경과학기획	가정	20년
9	진학지도부장	박수현	남	진학지도기획	지학	19년
10	보건체육부장	김남식	남	보건체육기획	체육	24년
11	과학교육부장	임학경	남	과학교육기획	국어	14년
12	학년부장	이미숙	여	학년기획	윤리	16.08년
13	남생활관장	장기영	남	생활관관리기획	음악	17년
14	교사	김일민	남	교내생활지도계	영어	17.06년
15	교사	김혜숙	여	봉사활동,문서	사회	28.07년
16	교사	김윤숙	여	계발활동계	사서	8.06년
17	교사	장기철	남	수업시수계	중국어	17년
18	교사	박미란	여	교무학적계	국어	19년
19	교사	김광철	남	학자금지원,문서	화학	16년
20	교사	배효숙	여	환경미화계,통일교육	기술	2년
21	교사	서정애	여	행사계	영어	12년
22	교사	송미란	여	연구통계계	일본어	10년
23	교사	신지숙	여	환경윤리계	역사	3년
24	교사	박상길	남	도서계	체육	8년
25	교사	이경미	여	교무업무시스템	생물	13년
26	교사	김신영	남	보건, 중식지원	국어	15년
27	교사	이명수	여	여학생지도계	국어	8년
28	교사	김철수	남	교무고사계	수학	15년
29	교사	이희연	여	문서장학계	보건	7년
30	교사	이혜진	여	전산계	영어	8년
31	교사	장석환	남	과학교육계	수학	11년
32	교사	김기명	여	예절교육계	국어	9년
33	교사	진수관	남	출결계	영어	25년
34	교사	오현수	남	정보문서	물리	1년
35	교사	김동중	남	연구문서계	종교	3년

24) 본 논문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 윤리 전통에 따라 사람이름 및 학교명 등을

2.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세 가지 자료 출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즉, 참여관찰일지와 면담 일지 그리고 각종 문서 자료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과 자료 수집이라는 두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순환적으로 일어나므로 자료 분석과 자료 수집은 상호보완적이며 통합적인 관계에 있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이 직선적이고 질서 정연한 방식을 통하여 진행되어지지 않으므로, 질적 분석과 관련하여 정확히 따라야 하는 규범적이고 규정적인 분석의 틀이나 규칙, 정해진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질적 자료 분석의 과정은 기계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분석의 아이디어들이 적용될 수도 있다.²⁵⁾ 연구진은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각각의 자료들을 주의 깊게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문장에 줄을 그었다. 그리고 전사 자료의 옆에 생각나거나 의문 나는 점이 있을 때마다 즉시 공간에 기록해 놓았다.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면담 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전사하여 저장하였는데, 이러한 전사과정을 통해 분석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다음 단계로 주제별 암호화(coding)와 개발과 적용의 단계를 거쳤다. 이는 연구자가 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특정 부분이 나타내는 주제나 이슈를 연구문제나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그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주제로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주제 또는 의미를 생성하기 위하여 위의 단계에서 도출되어진 다양한 암호화(coding)의 면밀한 읽기와 분석, 해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이들 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 또는 의미를 생성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자는 다양하게 수집된 자료들 속에서 소주제를 도출해 내었고, 또 도출해 낸 소주제 속에서 중 주제들을 도출해 내었으며, 마지막으로 중 주제들을 분석하여 대주제들을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정리과정에서 제보자들의 언어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대로를 기술하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고유명사나 명칭은 가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1차 연구보고서 작성 후 연구에 참여했던 2명의 교사에게 읽게 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 하였다.

모두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25) 이용숙 외, 앞의 책, 255-259쪽.

IV.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인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드러난 문화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 ‘품앗이 문화’, ‘하늘바라보기 문화’, ‘모습 드러내기 문화’ 등 네 가지가 나타났다.

1.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교사들의 관심이나 활동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며, 묵묵히 동료들을 챙겨주고 지켜봐주는 교사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성상 한 학교에서 오래 동안 같이 근무하다 보니 서로를 잘 아는 가운데 동료의식이 형성되고, 건학이념에 따른 기독교 정신이 교사들의 생활 속에 배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진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의 유형에는 ‘나누기’, ‘버팀목’, 그리고 ‘수호 천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나누기’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의 한 유형으로 나타난 것은 ‘나누기’문화이다. ‘나누기’문화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문화에는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찾아가 그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봉사하기’와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적은 일부지만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위해 함께 나누는 ‘기부하기’가 있다. 또한 토요일 오후에는 컴퓨터복지원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다음은 그 사례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희 반 아이들과 한 달에 한번 씩 매달 컴퓨터복지원에 가서 목욕봉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서먹서먹해하고 낯설어 하더니 나중에는 능숙하게 목욕봉사를 하더라고요.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 분들이라 목욕시켜 드릴 인력이 부족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일을 한 거죠. 학생들도 목욕 봉사활동을 통해 거동이 어려운 지체 장애인 분들과 접하면서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과, 보람을 가지는 것을 보았어요. 학급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학생과 같이 와서 이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더니 학생의 모습이 눈에 띄게 착하게 변하더라고요. 학생들 인성교육과 품성계발엔 봉사활동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한사랑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교사와 사모들이 토요일 오후에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2007. 9. 14. 오정환 교사)

또한, 한사랑 고등학교의 교사 중에는 드러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사들이 있다. 비록 가진 것이 넉넉하진 않아도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도와주는 교사들이 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말없이 도와주는 기부하기 문화가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 속에 있다. 한사랑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매월 월급에서 소정의 금액을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장학금으로 떼어 적립하고 있으며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회의를 거쳐 즐거운 마음으로 학생을 도와준다. 이처럼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 속에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말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있다. 다음은 김철수 교사의 이야기이다.

한사랑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신 참 좋으신 선생님들이세요. 제가 작년에 고3 담임을 할 때 저의 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참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2에서 고3으로 올라왔을 때 2학년 때 등록금이 해결되지 않아 선생님들이 매달 적립하고 있는 교사 장학금을 받아 2학년 등록금 전액을 해결해 주었었는데, 3학년 등록금도 역시 낼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말 직원회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꺼내었는데, 2학년 등록금을 이미 한번 교사 장학금으로 해결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만 듣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에서 고3 교무실로 왔는데, 선생님 두 분이 따로 따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두 분 다 개인적으로 그 학생의 등록금을 대주고 싶은데 그 학생이 누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학생의 수업료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저는 그때 저를 찾아 오셨던 그 두 선생님이 참으로 고마웠고, 개인적으로 참으로 존경스러웠어요. (김철수 교사)

2) ‘버팀목’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의 또 다른 한 유형으로 ‘버팀목’ 문화를 형성하는데, 버팀목이란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 주는 것이다. 이는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의 문화 속에는 동료교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하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 세워주는 ‘버팀목’ 문화가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한사랑 고등학교의 ‘버팀목 문화’속에는 서로 ‘믿고 신뢰하기’, 바쁘고 어려운 동료들 ‘대신해 주기’, 힘들고 어려울 때 ‘버팀목 되기’가 있다.

우선, 한사랑 고등학교의 교사문화 속에는 ‘믿고 신뢰하기’가 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사와 행정가가 서로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믿고 신뢰하기’가 한사랑 고등학교에 있다.

또한 한사랑 고등학교에서 ‘버팀목’ 문화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은 바쁘고 어려운 동료의 힘을 덜어주는 ‘대신해 주기’이다. 한사랑 고등학교에는 매일 아침 직원 조회가 있다. 학급 담임교사는 월요일에만 전체 직원회에 참석하고 그 외 요일에는 학급의 정숙지도를 위해 학교에 출근하는 대로 담임 교실로 가 정숙지도와 독서지도를 실시한다. 그래서 담임교사가 아침 직원회에 참석하지 못해 전달사항들을 전달 받지 못할 때엔 액티브

포스터를 활용하지만 긴급 사항으로 담임이 알아야 할 상황일 경우엔 학급 부담임 교사들이 기록을 해서 쪽지를 전달해 주거나 구두로 전달해준다. 또한 출장과 연수 가는 교사들을 위해 동료교목 교사가 ‘수업 대신해 주기’, 업무가 많은 교사들을 위해 업무를 나누어 하거나 대신해 주는 ‘대신하기’가 활성화되어 있다. 다음은 양호교사와 ‘시수계’ 담당교사가 출장 관계로 액티브 포스터에 올린 글이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제가 개인사정으로 오후에 보건실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실은 오후에 개방이 힘들 것 같고요. 이해진 선생님과 김윤숙 선생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아픈 학생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픈 학생들이 생기면 두 선생님께로 보내주세요. 잘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6. 김혜숙 교사)

내일은 일급 분의 선생님들께서 대학진학 입시 설명회 출장이 있는 관계로 정상적으로 수업시간을 운영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보내드리는 입시시간표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린 입시시간표 중에 음영 표시된 부분은 대강이며 모든 분들께 개인적으로 부탁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대강은 같은 과목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이 많으신 분이라도 넣었습니다. 출장가시는 담당선생님께서 대강해주시는 선생님들에게 수업자료를 주시고 가실 것입니다. 나눠주시고 자율학습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 3. 10. 이명수 교사)

이처럼 한사랑 고등학교의 교사문화 속에는 늘 반복되는 고달프고 힘든 하루의 일과 중에서 더 바쁜 동료 교사들을 대신해서 도와주는 ‘대신해 주기’가 있다. 또한 힘들어 쓰러질 때 곁에 서서 쓰러지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며,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미는 ‘버팀목 되기’가 한사랑 고등학교의 교직문화 속에 있다. 이와 같이 한사랑 고등학교의 교사문화 속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의 한 유형으로 바쁘고 힘든 동료교사에게 ‘버팀목 되기’문화가 있다.

3) ‘수호천사’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진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의 세 번째 유형으로 ‘수호천사’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수호천사란 항상 사람 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천사를 일컫는다. 이는 한사랑 고등학교의 교사문화 속에 수호천사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교사문화가 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 속에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문화가 있는데, ‘수호천사’ 문화의 유형으로는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방문하기’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기’가 있고, 관심을 갖고 동료교사들의 생일 등을 ‘챙겨주기’ 문화가 있다.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에게는 병원이나 집 등을 방문하여 아픈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방문하기’ 문화가 있다. 다음은 매주 토요일 오후 ‘아기천사’라는 제목으로 소아

병동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김동중 교사와의 대화이다.

연구자 : 얼마나 자주 병원을 방문하여 이러한 일을 했나요?

김동중 :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병원을 방문해요.

연구자 : 병원을 방문을 가서 주로 어떠한 일을 하나요?

김동중 : 소아병동이니까, 아이들을 위해 노래도 불러 주고, 재미난 연극도 공연하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와 그림 색칠하기 등 여러 가지 색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연구자 : 아이들이 아주 좋아 할 것 같은데요.

김동중 : 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아이들도 즐거워 하지만,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시는 부모님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즐겁고 아주 보람된 시간이지요. 아픈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병간호에 지친 부모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면... 사실 힘들고 바쁠 때는 하루정도 쉬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저희들이 하는 작은 일들이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 그들의 아픈 병상을 지켜줄 수만 있다는 생각과, 그 어린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생각하면 또 나갈 수밖에 없게 되죠. (2008. 4. 12. 김동중 교사, 소망소아병동)

이처럼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문화 속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소아병동을 방문하여 소아병동에 입원한 아이들을 위한 아기천사가 되어 아이들을 지켜주는 문화가 있으며, 또한 아픈 교직원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와 용기를 주는 ‘방문하기’가 있다. 또한 아프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료교사나 학생 또는 전 교직원 가족들을 위한 ‘기도해주기’가 한사랑 고등학교의 교사문화로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사랑 고등학교의 교사문화에는 ‘챙겨주기’문화가 있다. 생일을 맞은 교사들에게 교목실에선 작은 선물을 준비해 전달해 주었고, 학교장은 월말 직원회 시간에 그 달에 생일을 맞은 교사를 위해 꽃다발을 준비해 월말 직원회가 시작되기 전 꽃다발을 전달해 주었다. 생일을 맞이한 교사들이 앞으로 나가 꽃다발을 받고 서 있으면 자리에 앉아 있는 교사들이 생일 맞은 교사들을 위해 생일축가 노래를 불러 준다. 이처럼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문화 속에는 단체로 생일을 축하해 줄 뿐만 아니라 부서별, 또는 교과별 등으로 생일 맞은 교사와 같이 식사를 하며 생일을 챙겨주기 축하해주는 문화가 있다. 다음은 교무과 김일민 교사의 이야기다.

저희 교무과 같은 경우는 과원 중에 생일을 맞은 사람이 있으면 꼭 생일 파티를 해줘요.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는데, 생일 맞은 사람을 위해서 회비를 건어서 밥을 먹고 축하도 해주고 조그마한 선물도 해요. 서로에게 아주 즐거운 시간이지요.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단합도 하고 서로에 대해 개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2008. 3. 12. 김일민 교사)

이처럼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문화 속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의 한 유형인 ‘수호천사’문화로서 다른 사람을 위한 ‘방문하기’, ‘기도하기’, 그리고 ‘챙겨주기’의 ‘수호천사’ 문

화가 있다.

2. ‘품앗이 문화’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이 ‘품앗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관심이나 활동이 품앗이가 나타내는 것처럼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는 상부상조의 교사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품앗이 문화’에는 ‘상호부조의식’과 ‘의리’라고 할 수 있는 정신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품앗이 문화’가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문화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교사들이 한 학교에서 오래 동안 같이 근무하다 보니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의 ‘품앗이 문화’의 유형으로는 ‘도르리’, ‘함께하기’, ‘깊은 마음나누기’ 등이 있다.

1) ‘도르리’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인 ‘품앗이 문화’의 유형으로 나타난 하나의 특징은 ‘도르리’이다. ‘도르리’²⁶⁾라 함은 여러 사람이 음식을 차례로 돌려가며 내어 함께 먹는 문화를 말하는데, 이는 한 사람만 계속 식사를 내어서는 이러한 ‘도르리’문화가 형성 되어 질 수 없다. 따라서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문화에 ‘도르리’ 문화가 있다는 것은 교사들이 함께 자주 식사하면서 각자 밥값을 내기보다는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식사를 내는 것이 교사문화 속에 들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사랑 고등학교의 교사문화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도르리’ 문화의 사례는 매주 토요일 점심시간에 함께하는 식사이다.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은 종교모임을 갖은 후 점심시간을 같이 식사를 내어 나누어 먹는 ‘도르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은 토요일 점심시간을 기다려요. 교사들 간에 서로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 (2008. 3. 29. 장기철 교사 면담에서)

남교사 사모님들과 여교사로 짜여져 있는 식사 당번 조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전교직원들이 예배 후에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사모님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남교사들이 많이 도와준대요. (2008. 4. 3. 이경미 교사 면담에서)

아직 미혼이거나 사모들이 한사랑 고등학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남교사들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 대신에 과일을 낸다. 또한 특별한 일이나, 감사할 일들이 있는 교사들

26) 1. 여러 사람이 음식을 차례로 돌려 가며 내어 함께 먹음을 나타내는 순우리 말.

2. 똑같이 나누어 주거나 골고루 돌려 줌. (2008. 4. 17.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

은 자진해서 떡이나 과일 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교직원 가족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 나가며 동료관계를 유지한다.

이처럼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문화에는 ‘품앗이 문화’의 한 유형으로 ‘도르리’ 문화’가 있고, ‘도르리’가 의미하는 것처럼 서로 음식을 내어 함께 나누는 문화가 있다.

2) ‘함께하기’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인 ‘품앗이 문화’의 한 유형은 ‘함께하기’이다. ‘함께하기’란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로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즉, 학교 교사문화 속에서의 단합을 의미한다.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진 ‘함께하기’는 다양하다. 전교직원이 함께하기 뿐만이 아니라 거주지별, 부서별, 교과별 그리고 학년별 함께하기 등이 있다.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료교사와 함께 여행하기, 등산하기, 자전거 타기 그리고 테니스치기 등 동아리 활동 함께하기도 있다.

한 예로 한사랑 고등학교 3학년 교사들은 3학년 담임 경험이 많은 네 명의 교사들과 3학년 담임 경험이 없는 두 명의 교사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하여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근무해야하고, 심지어 휴일까지도 학교에 나와 자율학습 감독을 해야 하는 3학년 교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같이 보낸다. 그래서 3학년 교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시간이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3학년 교사들의 독립된 공간인 고3 교무실에서 따로 생활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더욱 더 가까워졌다. 한사랑 고등학교 3학년 교사들은 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같이 식사하러 간다.

한사랑 고등학교 3학년 교사들은 서로서로 마음이 잘 맞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남아서 자율학습 감독을 하죠. 이번에 수능 시험과 학생들의 진학지도가 다 끝나게 되면 겨울 방학에 3학년 교사들끼리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거두고 있어요. (박미란 교사)

그것뿐만이 아니죠. 한사랑 고등학교 3학년 교사들은 여행 경비 말고 일정액의 회비를 따로 거둬 음료수와 견과류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3학년 교사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물함에 넣어두고, 학부모 면담 할 때와 상담할 때에 제공해 주기도 하고, 점심 식사 후 3학년 교사들이 교무실에 모이면 같이 꺼내 먹으면서 서로 진학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주고 받는 등 ‘함께하기’가 3학년 교사들에게 있죠. 3학년 담임들은 음료수 등이 생기면 음료수를 개인 사물함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3학년 공용 사물함 속에 갖다 넣지요. (임학경 교사)

이처럼 한사랑 고등학교의 3학년 담임교사들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상호 협력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동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1,2학년 담임교사들과 비담임 교사들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함께하기’를 하고 있는데, 1학년 담임교사들은 체험학습, 2학년 담임들은 자연탐사 등 각 학년의 행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서로 힘을 합쳐 ‘함께하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담임교사나 비담임 교사들은 체육대회, 각 중 경시대회, 체력검사 등의 학교 행사를 통하여 ‘함께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은 클라리넷, 기타, 색소폰, 첼로 등의 악기를 배우기 원하는 교사들끼리 함께 모여 배우고 있으며, 교사 중창 동아리로서 남성 사중창 팀과 복 중창 팀으로 구성된 교사들이 음악을 통하여 ‘함께하기’를 하며 중간교사나 기말교사로 학생들이 공부에 바쁠 때 대신 음악 순서를 담당한다.

이처럼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 속에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고받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가진 ‘품앗이 문화’의 한 유형으로 ‘함께하기’ 문화가 있는데, 그 유형의 저변에 깔려있는 상호부조의식과 의리와 함께 단결과 단합을 강조하면서, 교무실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한다.

3) ‘깊은 마음나누기’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문화인 ‘품앗이 문화’의 세 번째 유형은 ‘깊은 마음나누기’ 문화이다. ‘깊은 마음나누기’란 마치 친구처럼 속내를 드러내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친하게 지내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한사랑 고등학교의 교사문화 속에는 이처럼 깊은 마음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다. 한사랑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사립학교에 근무하지만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8년마다 법인 내에 있는 학교끼리 전근을 오고가는데, 서로 몇 번 다른 학교에서 만나기도 하고, 매년 한 번씩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전국 한사랑 학교 교직원 테니스 대회 및 전국 한사랑 학교 교직원 등반대회 등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를 잘 알고 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 해 같이 근무하다보니 서로 가까워져서 마음이 통하는 교사들끼리는 형제보다 더 가깝게 되더라고요. 주말이면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족이 함께 어울려 주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여행을 떠나 교사는 교사끼리, 사모는 사모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서로같이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형제 이상의 정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왜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잖아요. 사실 형제라 할지라도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면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2007. 12. 8. 임학경 교사)

저는 개인적으로 친한 몇 선생님과 어울리면서 의형제를 맺었어요. 나이가 서로 다르고, 차이도 나지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 만나다 보니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호칭이 그냥 선생님이지만 사석에서는 큰 형님, 둘째, 세째, 그리고 막내라는 호칭을 써가면서 더욱더 친근감을 표시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동료 교사들이죠. (2007. 12. 15. 김일민 교사)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상생활 중에 특정교사끼리 무리지어 어울리기 보다는 서로 흥금 없이 서로를 드러내며 함께 어울려 생활하다 애경사가 있게 되면 서로 큰 힘이 되어주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교사문화가 있다. 경사일 때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동료교사의 가정에 애사가 있을 때에는 더욱 더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 상가가 학교에서 너무 멀어 하루에 갔다 올 수 없는 거리라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사들이 상가에 가서 상을 당한 동료교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노력한다.

3. ‘하늘바라보기 문화’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문화에는 ‘하늘바라보기 문화’가 있다. ‘하늘바라보기 문화’는 한사랑 고등학교가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라는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사랑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가진 ‘하늘 바라보기 문화’의 유형으로는 ‘한 방향 향해가기’, ‘창조 자연 접하기’, ‘두 가지 역할하기’ 등이 있다.

1) ‘한 방향 향해가기’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문화인 ‘하늘바라보기 문화’의 한 유형은 ‘한 방향 향해가기’이다. 이는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 속에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뜻하며, 그러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늘나라를 한 목표로 하여 ‘한 방향 향해가기’ 문화가 있음을 말한다. 다음은 교감이 학년 초 교사들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김신영 교사의 이야기이다.

제가 지난번 부장회의 시간과 교무회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선생님들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한사랑 고등학교의 가족이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한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이겠습니까?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늘나라 가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의견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용기 있는 것은 남하고 내 생각이 다를 때 서로 생각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해 못할 것이 없고, 다 소중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화합하는 교무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8. 2. 25. 교사 헌신회 교감 훈화 중에서)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은 서로 각각 다른 개성과 취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각각 다른 조합을 하나로 묶어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모여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삐걱거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라보는 시선이 같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직원 가족 전체가 함께 어울려 드리는 예배에서 가족별, 지역별, 교과별, 부서별 등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말씀과 음악순서 등을 함께 준비하기도 하며, ‘하늘나라’라는 한 방향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다보니 서로가 많은 공감대가 가지면서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2007. 12. 1. 김신영 교사)

이와 같이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인 한사랑 고등학교에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방향 향해가기’ 교사문화가 나타났다.

2) ‘창조 자연 접하기’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문화인 ‘하늘바라보기 문화’의 한 유형은 ‘창조 자연 접하기’이다. 여기서 ‘창조 자연 접하기’란 학생들이 공부할 때 단순히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학문적인 것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원천인 자연 속에 펼쳐져 있는 광범위한 분야로 그들의 관심을 넓히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향에 따라 한사랑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전체 학생들이 강원도에 있는 별새꽃돌 자연 탐사관을 방문하여 달과 별이 있는 밤하늘을 천체 망원경을 통하여 관측하였고, 아침 일찍 즐겁게 지저귀는 새들을 찾아 뒷동산에 올랐으며, 여러 꽃들 속에 숨겨져 있는 자연계의 신비를 찾아내는 1박 2일의 자연 탐사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학생들을 이끌고 자연 탐사관을 다녀왔던 김일민 교사와의 대화이다.

연구자 : 김 선생님, 학생들을 데리고 별새꽃돌 자연 탐사관을 다녀오셨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김일민 : 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연구자 : 무엇을 보고, 배우고 오셨는데요.

김일민 :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움이죠. 꽃과 식물을 통해서 피나치수열을 배웠는데, 피보나치수열로 꽃잎이 만들어지면 식물이 광합성 빛을 받기가 쉬워지고 뿌리와 꽃 사이의 물을 흡수하는 데 많이 이롭다고 하네요. 해바라기 꽃도 피보나치수열로 이루어 졌더라고요. 꽃잎 배열이 나선형으로 돌아갈 때의 모양이 소라 껍데기 모양이거나, 씨의 배열 등의 모양이 규칙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죠.

연구자 : 그럼 우주의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인가요?

김일민 : 네, 꽃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야생화와 별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꽃을 그냥 볼 때와 확대경을 통해서 볼 때는 그 맛이 또 달라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크게 확대해서 보면 조그마한 야생화라도 그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연구자 : 별들을 보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김일민 : 별들도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과 천체 망원경을 통하여 보는 것은 아주 달라요. 그 느낌부터가 다르더라고요. 눈으로 볼 때는 그저 반짝반짝 거리는 모습만 보였는데,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보니, 별들이 훨씬 더 크게 둥그란 별도 보이고, 색깔을 약간 띤 별도 보이더라고요. 테두리 색깔이 어떤 별은 약간 파란색도 띠고 있고, 또 어떤 별은 빨간색 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은 아주 신기했었어요.

연구자 : 그러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김일민 : 꽃들과 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이 저렇게 규칙적으로 만들어 진 것은 진화론에 의해 자연히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들을 만들어 낸 창조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학생들도 자연계 속에서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를 많이 배웠어요.

이처럼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인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은 ‘하늘바라보기 문화’의 한 유형인 ‘창조 자연 접하기’를 통하여 자연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의 품성과 인성을 계발하고자 한다.

3) ‘두 가지 역할하기’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인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진 ‘하늘바라보기 문화’의 세 번째 유형은 ‘두 가지 역할하기’이다.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이 ‘두 가지 역할하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기독교 학교 교사로서의 역할 두 가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 시켜 좋은 상급학교에 많이 진학시켜야 하는 상급 학교 진학이라는 목표가 있는가 하면, 교사들이 건학이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신앙교육도 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와 학교 내에서 교회의 장로나 집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역할하기’가 교사들의 문화 속에 있다.

한사랑 고등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은 강당에서, 교사들은 특별실에서 따로 예배를 드린다. 학생들은 1부 순서로 학년 초 계획에 따라 짜여진 순서에 의해 각 반별로 일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중창이나 합창, 기악이나 성극, 그리고 말씀과 간증 등의 순서로 각 반에 맞게 순서를 준비하여 동아리 발표회처럼 예배를 진행하며 2부 순서 때에는 대예배로 학교 교목의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한사랑 고등학교의 교목은 3명이다. 학생 대예배가 진행 될 때에는 고3학년 중에서 학생 집사로 선발되어진 학생들이 모든 순서를 진행하게 된다.

교사들도 학생들과 따로 연간 계획에 따라 지역별, 가족별, 교과별, 부서별로 1부 예배 순서를 진행하게 되는데, 말씀과 음악 순서 등으로 1부 모임을 갖고, 2부 예배로 설교 예배를 드린다. 설교 예배 때에는 학교 교목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데, 이 때 남교사들과 여교사들은 한사랑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따라 순서를 진행하게 된다. 한사랑 고등학교 남교사들은 장로와 집사가 되고, 여교사들은 집사가 되어 교회의 순서가 진행되어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남교사들에게는 가급적 나이에 따라 교회의 직분이 주어지게 되는 데, 장로인 교사는 순서를 진행하는 사회자와 기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남집사들과 여집사들은 헌금 수합을 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또한 예배 진행 순서 외에도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직책에 따라 교회의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다음은 수학교과를 가르치며 교

회에서 집사와 재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철 교사와 예배의식에 참가했던 지구과학 이명수 교사의 말이다.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로서 해야 할 일과 또한 한사랑 교회에서 주어진 장로와 집사의 일 들을 수행하여야 하기에 교사들의 업무가 이중으로 늘어나요. 모든 교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수학교과 담당 교사로서 해야 할 저의 업무가 많이 있을 때, 또한 거기에 교회 일에 대한 업무가 주어지면 정말 바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저에게 주어진 일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해야죠. (2007. 10. 18. 장기철 교사)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한사랑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배 순서를 진행 하거나 성만찬 예식 같은 교회 예식을 진행함에 있어 직책을 맡은 교사로서 교회에서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다 교실 학생들 앞에 설 때, 화를 내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다 드러낸다면 좀 그렇잖아요. 또 다른 모습을 교사들이 보인다면 아이들이 먼저 알잖아요. 선생님이 가식적이라는 것을...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요. 그래서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지요.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은 전부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라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으시며, 생활에 절제하셔요. 그래서 학생들 생활지도나 인성지도를 할 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학생들을 지도 할 수 있지요. (2007. 11. 14. 이명수 교사)

이처럼 한사랑 고등학교 교사들은 ‘하늘바라보기 문화’의 한 유형인 ‘두 가지 역할하기’를 통하여 학교 교사로서의 일과 교회 장로나 집사로서의 일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 결과,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문화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 ‘품앗이 문화’, ‘하늘바라보기 문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에게 베푸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에는 ‘나누기’, ‘버팀목’, ‘수호천사’ 문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품앗이 문화’로는 ‘도르리’, ‘함께하기’, ‘깊은 마음나누기’ 문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한 기독교 학교 설립 이념에 따른 ‘하늘바라보기 문화’에는 ‘한 방향 향해가기’, ‘창조 자연 접하기’, ‘두 가지 역할하기’의 문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의 특징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사문화 속에는 다양한 지향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김철훈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한 특징으로 ‘진학과 질서유지’ 문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열 입시경쟁, 기계적·수동적 교육활동의 반복, 지식의 상품화로 인한 사제 관계의 변질, 교과 점수를 바탕으로 한 왜곡된 학생 평가와 경쟁심 조장 같은 교육활동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한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직문화’로 교직자의 길을 택한 교사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지배하는 교육의 수단적 가치에 함몰되어 가면서, 교사 초년시절에 가졌던 포부와 원칙들이 ‘진학=대학입시=교육’이라는 등식으로 희석되어 버렸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최종 목적인 ‘진학’에 그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²⁷⁾ 황석도는 교사문화의 특징으로 ‘성적 위주의 교육현실에 대한 순응성’을 제시했으며,²⁸⁾ 오영재는 ‘성적 위주의 교육 현실에 대한 순응적 자세를 제시 하였다.’²⁹⁾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입시위주 문화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연구에 의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 ‘품앗이 문화’, ‘하늘바라기 문화’ 등도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입시위주 문화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건학이념이나 전통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특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 속에는 강한 목적의식이 있음이 드러났다. 중학교 교사문화를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한 김병찬은 중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로 ‘목적의식이 약한 문화’를 들었다. 학교마다 그 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지만 명목상의 목표이지 실질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했다. 즉,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목표들은 교사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학교의 목표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왔거나 혹은 학교의 몇몇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세우는 목표들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실제적인 치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³⁰⁾ 그런데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를 연구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목적의식이 강한 문화’적 특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종교적 배경에 기반을 둔 ‘하늘바라보기 문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종교계 학교라 하더라도 종교적 성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 대상 학교의 종교적 성향은 상당히 강한 편이었다. 종교적 성향이 강한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문화 역시 상당히 강한 목적의식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사들의 목적의식이 약한 문화적 속성은 학교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사들의 협력문화 가능성이 탐색되었다. 선행연구 연구들에 의하면 교사문화의

27) 김철훈, 앞의 논문, 50-100쪽.

28) 황석도, 앞의 논문, 50-70쪽.

29) 오영재, 앞의 글, 207-230쪽.

30) 김병찬, 앞의 글, 10-20쪽.

대표적인 특징으로 ‘개인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로티(Lortie)는 교사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가 시간이 생길 경우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자신의 교실에서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고,³¹⁾ 황기우도 교사문화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주의 문화를 들었다.³²⁾ 또한 김경미,³³⁾ 김병찬,³⁴⁾ 오영재³⁵⁾ 등도 자신의 일 이외에 다른 사람의 일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기 보다 혼자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개인주의 문화’를 중학교 교사들이 가진 하나의 문화적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영재는 중등학교 교사들의 교단 일기를 분석한 결과 ‘달힌 성에서 혼자 살기’를,³⁶⁾ 황석도는 ‘달힌 성에서 누리는 자율성’을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직원 문화의 특징으로 밝히고 있다.³⁷⁾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 내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품앗이 문화’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한 학년이 6학급으로 전교생이 18학급이며, 교사가 39명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학교이기에 때문에, 그리고 종교계 학교의 특성에 의해 예배 등을 함께하는 시간이 많음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개인주의 문화’ 역시 교사들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상황맥락적인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일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의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교사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강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영성, 지성, 그리고 신체의 고른 발달을 도모하는 조화로운 교육을 추구하며, 신앙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인을 육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는 다양성 속에서도 목적의식이 강한 문화이다. 한사랑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각각 다른 개인의 성향으로 인해 학급을 운영함과

31) D. Lortie, 앞의 책, pp. 105-205.

32) 황기우, 앞의 글, 213-228쪽.

33) 김경미, 앞의 논문, 40-60쪽.

34) 김병찬, 앞의 글, 15-24쪽.

35) 오영재, 앞의 글, 207-230쪽.

36) 같은 글, 217-225쪽.

37) 황석도, 앞의 논문, 45-65쪽.

수업지도를 함에 있어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늘바라기 문화’와 같은 공통의 목적의식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성 속에서도 공통의 방향을 추구하는 교육의 한 모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셋째,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는 교사문화의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한사랑 고등학교에서 상호 협력과 협동을 보여주는 여러 유형의 ‘품앗이 문화’가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개인주의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한사랑 고등학교에서는 기독교적 신앙이 교사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 학교를 대상으로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를 연구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더 많은 수의 기독교계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검증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 김경미, 「중등학교 교직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병찬, 「중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1권 1호(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 김영태, 「2월의 교직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4권 1호(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2001).
- 김준기, 「학교조직문화 진단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철훈, 「인문계 고등학교 문화연구」(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희복, 「학부모 문화 연구: 부산지역 중산층의 교육열」(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박용현, 『학교와 사회』, 서울: 배영사, 1997.
- 박재범,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연구』, 12권 2호(서울: 한국특수교육학회, 2005).
- 박정근, 「초등학교 동 학년 교사문화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종흡 · 이관규,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관한 연구」, 『지방교육경영』, 2권 1호(부산: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1997).
- 오영재, 「교단일기를 통해 본 중등교사의 삶과 문화」, 『교육학연구』, 39권 4호(서울: 한국교육학회, 2001).
- 오영재, 『한국 학교조직 질적 연구』, 서울: 학지사, 2007.
- 오현옥, 「신설중학교 교사문화에 관한 연구」(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용숙 외 5명,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 하는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2005.
- 이인호, 「인문계 고등학교 교직문화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이정선 · 최영순, 『초등학교문화 이해』, 경기: 학지사, 2007.
- 정병호, 「공 · 사립 인문계고등학교 교사문화 비교」(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조영달, 『한국 중등학교 교실수업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2001.
- 주삼환, 『역사적 전환시대의 한국교육』, 서울: 동문사, 2001.
- 최용성, 「여수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직문화연구」(여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함영기 · 양정호, 「인터넷 활용의 일상화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문화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1권 4호(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 황기우, 「교사문화의 생성과정 분석」, 『교육문제연구』, 제17호(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2).
- 황석도, 「교육활동을 통해 본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에 대한 질적연구」(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Lortie, D., *The school teacher: A sociological Stud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75.
- Spradley, J. P.,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원고접수: 2009년 1월 21일 1차심사: 1월 29일 게재승인일: 2월 4일

연구자 소개: 윤성원

- ① 전공: 영어교육, 교육행정 / 소속: 한국 삼육고등학교 교사
- ② 관심영역: 영어교육, 교육행정, 기독교교육
- ③ 주요논저: 〈기독교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 연구〉
- ④ E-mail: yswet@hanmail.net

연구자 소개: 김병찬

- ① 전공: 교사교육, 교육행정 / 소속: 경희대학교 교수
 - ② 관심영역: 교사교육, 교사문화, 기독교교육, 학교경영, 교육행정가 교육
 - ③ 주요논저: 〈교사들이 원하는 교장상 탐색 연구〉, 〈남한과 북한의 교사양성과정 비교 연구〉, 〈한국에서 교원의 지도성 연구 최근 동향 분석〉, 〈교사의 생애발달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교장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연구〉
 - ④ E-mail: bckim@khu.ac.kr
-

Abstract

A Study of the Teachers' Culture in a Mission Academic High School

Yoon, Sungwon

Hankook Sahm Yook High School

Kim, Byeongchan

Kyung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understand and analyze how the teachers in mission school perceive themselves both as teachers and christians in carrying out their dual-duties and satisfy their roles in a very comparative forms of high school system. Among other methods, in-depth observation on teacher's participation on the project and personal interviews were taken as research tools and other surveyed informations were used as reference materials as well.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eachers' culture revealed in Hansarang high schools' are as follows:

One of main characteristics of the teachers' culture shared in Hansarang High School is the 'free giving trees' culture. The whole concept of that particular culture covers the bases of the Hansarang school education and it encourages teachers to be more caring and considerate of others, even if they are obliged to achieve higher goals in education. The 'free giving trees' also includes cultures like 'sharing', 'wooden support', and 'guardian angel', and which reflect the same ideas.

Another type is the '*poomahtshi*'(exchanging works) culture in Hansarang, which can be rephrased as 'interchanging assistance' or 'moral-duties among colleagues'. The concept is correlated with the spirit of christianity which has its foundation on sacrifice and sharing. In that category, there are other cultures with the same concept such as 'sharing food', 'being together', and 'sharing hearts'. Even though the necessity of it has been questioned many times, the sharing food culture has been enjoyed and practiced for decades as a tradition and serves as a main source that bonds teachers together.

The third culture the teachers share in Hansarang is the ‘focusing on the heaven’ culture which motivate teachers to be more of christians than just being mere teachers found everywhere. Another words, it is the culture that encourages teachers to ‘navigate toward the heaven’, looking onto the higher goals beyond the limits within themselves. Other same patterns are like 'experiencing nature' and 'playing-out two roles' cultures.

Key words : Mission academic high school, teachers' culture, culture of cooperation, aim-oriented culture